

Bigdata Analysis

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



01. 워드 클라우드(Word Cloud) 분석

2017년 7월 ~ 8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, 분석한 결과 생선, 식품, 안전, 품질, 판매, 포장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



주요 키워드 :

생선, 식품, 안전, 품질, 판매, 포장 등



02. 이슈 트렌드 분석

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.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

2002. 1
유럽연합
식품이력제도를 포함한
일반식품법 제정

2016. 10. 18
유라시아경제위원회
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
기준인증제 결정

2017. 09. 01
유라시아경제연합
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
기준인증제 시행

핵심이슈
도출

유라시아경제연합, 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인증제 시행



Bigdata Analysis

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



03.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

유라시아경제연합, 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인증제 시행

2017년 9월 1일, 유라시아경제연합(Eurasian Economic Union, EEU)이 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인증제를 시행하였다. 이 인증제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 내의 생선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생산, 보관, 운송, 판매 및 처분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포함한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포장지에 제품명 뿐만 아니라 품종의 동물학적 이름 및 유전자 변형 요소 포함 여부, 가공 방법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둘째, 모든 제품은 안전한 곳에서 생산, 가공되어야 하며 자연 및 인공 호르몬,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. 셋째, 가공되지 않은 생선은 위생검사결과보고서와 함께 판매되어야 하며, 재가공된 생선 식품은 정해진 규격의 신고서와 함께 판매되어야 한다.

해당 인증제의 시행으로 인해 유라시아경제연합국에서 유통되는 생선 및 생선 식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포획부터 포장까지 제품생산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.

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

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(Seafood Traceability System)가 대표적이다. 수산물이력제란, 수산물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 표지 및 이력추적관리번호 13자리를 표기하는 제도이다. 소비자들은 이력추적관리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생산, 가공, 유통 및 판매 프로세스를 알 수 있다. 이를 통해 수산식품의 사고 발생했을 경우, 그 원인 및 사고 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상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조치를 진행하고 피해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전세계적으로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등에 식품이력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1996년 영국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사고인 광우병이다. 수입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.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품질보장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생선 및 생선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인증제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.
<http://docs.cntd.ru/document/420394425>

1.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«О безопасности рыбы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» 2017.09.01
2. Рыбная продукция станет качественнее и безопаснее, 2017.09.07

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, 가공·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.